



KOREAN A1 – HIGHER LEVEL – PAPER 1
CORÉEN A1 – NIVEAU SUPÉRIEUR – ÉPREUVE 1
COREANO A1 – NIVEL SUPERIOR – PRUEBA 1

Tuesday 18 November 2003 (afternoon)

Mardi 18 novembre 2003 (après-midi)

Martes 18 de noviembre de 2003 (tarde)

2 hours / 2 heures / 2 horas

INSTRUCTIONS TO CANDIDATES

- Do not open this examination paper until instructed to do so.
- Write a commentary on one passage only.

INSTRUCTIONS DESTINÉES AUX CANDIDATS

- Ne pas ouvrir cette épreuve avant d'y être autorisé.
- Rédiger un commentaire sur un seul des passages.

INSTRUCCIONES PARA LOS ALUMNOS

- No abra esta prueba hasta que se lo autoricen.
- Escriba un comentario sobre un solo fragmento.

다음 중 하나를 골라 해설하시오.

1(a) 기도

땅이 꺼지는 이 요란 속에서도
언제나 당신의 속사권에
귀 기울이게 하옵소서.

5 내 눈을 스쳐가는 허깨비와 무지개가
당신 빛으로 스러지게 하옵소서.

부끄러운 이 알몸을 가리울
꽃잎 하나 주옵소서.

나의 노래는 당신의 사랑입니다.
당신의 이름이 내 혀를 달게 하옵소서.

10 이제 다가오는 불 장마 속에서
'노아'의 배를 타게 하옵소서.

그러나 저기 꽃잎 모양 스러져 가는
어린 양들과 한 가지로 있게 하옵소서.

(구상 시집 ' 초토의 시' 에서)

1(b) 멋있는 사람들

사람의 평균 수명이 크게 늘었다고는 하나, 80 세를 넘기기는 지금도 역시 쉬운 일이 아니다. 짧게 제한된 이 시간 속에서 뜻있고 보람찬 삶을 이룩하고자 사람들은 저마다 설계와 실천에 여념이 없다.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멋있게 사는 것일까? 멋있는 길이 오직 한 줄기로만 뻗어 있는 것으로는 생각되지 않는다. 개인의 소질과 취향 그리고 형편에 따라서 각각 다른 길이 모두 뜻과 보람으로 아름다울 수도 있음직하다.

5 예술가의 생활은 언제 어느 모로 보아도 멋과 보람으로 가득 차 있다. 명성이 높은 예술가라면 더욱 좋을 것이며, 비록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예술가의 경우라 하더라도, 심혈을 기울여 창작의 길로 정진하는 모습에는 부러움을 느끼게 하는 귀한 분위기가 따라다닌다.

참된 예술가는 아름다움을 창조하여 우리들에게 즐거움을 준다. 예술에서 오는 즐거움은 관능(官能)의 만족에서 오는 즐거움보다 깊이 가슴 속으로 파고 들어 긴 여운을 남긴다. 관능의 쾌락은 뒷맛이 어두우나

10 예술의 즐거움은 뒤가 맑아서 좋다. 그래서 우리는 예술가에게 감사를 느낀다. 예술이 한갓 상품으로 전락할 때, 예술가의 값도 떨어진다. 가난은 예술가의 경우에도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예술은 예술을 위해서 있어야 하며, 돈을 목적으로 삼는 순간 그것은 생명을 잃는다. 예술가가 권력의 시녀(侍女)가 될 때, 그의 모습은 장사꾼이 되었을 경우보다도 더욱 보기에 흉하다. 장사꾼도 아니요 권력의 심부름꾼도 아닌 그를 우리는 ‘ 예술가 ’ 라고 부르는 것이며, 그 앞에 마음의 꽃다발을 바친다.

15 학자의 생활은 남의 눈에도 별로 멋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 젊어서 화려하고 활달한 기질을 뽐내던 사람도 학자 생활 30 년만 하면 초췌한 영감으로 변한다. 그러나 학자의 생활에는 그 겉모습만으로는 짐작하기 어려운 내면의 세계가 있다. 학자로 행세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 깊고 넓은 세계를 보는 것은 아니지만, 그 세계를 향하는 외길로 생명을 불사르는 사람들에게는 그들 나름의 멋과 기쁨이 있다.

학자도 남의 눈에 멋있어 보일 때가 있다. 그의 학문이 한갓 전문적 지식에 머물지 않고, 자연과 인간을 20 바라보는 깊은 통찰이 그를 확고한 세계관 또는 인생관의 고지로 안내했을 경우이다. 그토록 거창한 경지가 아니더라도 신념과 지조를 갖춘 사상가로서의 면모가 뚜렷한 학자는 그 나름의 멋을 풍긴다. 학자의 모습이 가장 돋보이는 것은 돈이나 권력의 유혹을 뿌리치고 꺾끗이 자기 자신에게 충실할 경우이다. 여러 사람들의 비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소신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모습도 감동을 자아낸다. 백만 대군을 지휘하여 적진으로 돌진하는 장군의 모습도 멋이 있지만, 총칼 앞에서도 소신을 굽히지 않는 학자의 용기는 더욱 멋이 25 있다.

내 한 몸을 돌보지 않고 남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은 정말 멋이 있는 사람들이다. 만원 버스에 30 시달리면서도 얼굴에 미소를 지을 수 있도록 건강하고 여유가 있는 안내양은 아주 멋이 있어 보인다. 할머니를 도와서 부축하기도 하고, 엄마 대신 어린이를 번쩍 들어서 차 밖으로 내려 놓는 그의 모습은 반코트를 입고 부츠를 신은 명동의 아가씨보다도 더 멋이 있다. 병원의 간호사들 가운데도 멋있는 사람들이 있다. 백옥같이 흰 가운을 입고 고깔 같기도 하고 모자 같기도 한 것을 뒤통수에 얹은 그 청순한 외모도 멋이 있지만, 환자를 위하여 정성껏 돌봐 주는 고마운 마음씨가 더욱 멋이 있다. 모든 간호사가 누구나 그렇게 친절할 것은 아니다. 대개는 사무적으로 환자를 대하는 가운데 어쩌다 특별히 착한 간호사가 있어서 더욱 돋보이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모든 간호사들이 친절하다 하더라도 그 진가가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다.

남을 위해서 봉사를 하겠다는 결심을 하고 노력하는 사람도 있지만, 특별한 결심보다는 천성이 착해서 35 남에게 좋은 일을 많이 하는 사람도 있다. 내 욕심을 눌러 가며 노력하는 사람에게는 존경의 감정을 느끼고, 천성이 착한 사람에게는 친근감을 느낀다.

(김태길 ‘ 멋있는 사람 ’ 중에서)